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에 의한 칠정의 속성 연구

김우철, 김경수*, 김경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Study the properties of Chiljung using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oo-Chul Kim, Kyung-Soo Kim*, Kyeong-Ok Kim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agu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Dept. of physical therapeutics, Colleague of Health and Welfar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Emotion is composed by several basic feelings. This basic feeling is called Chiljung in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examines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related to Chiljung.

Methods :

A total of 199 students of Dongshin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were tested by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 and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This study is used 156 students' data, excluding 43 students' data. Of the enrolled 156 students, four groups were classified by QSCC II. The positive and negative properties of Chiljung were determined by PANAS. Thes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arson's chi-square test, Crosstabulation Analysis with SPSS windows 15.0.

Results :

1. Joy(喜) and Anger(怒) has directly-opposed emotional properties.
2. Thought(思) difficult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but it is distinct from Anxiety(憂) and Sorrow(悲)
3. Anxiety(憂) and Sorrow(悲) are superior in negative emotional properties.
4. Fear(恐) and Fright(驚) are superior in negative emotional properties, and Fright(驚) is superior over Fear(恐) in positive emotional properties.

Conclusions :

This study may serve as the foundation in identifying the psychological traits of Chiljung.

Key Words :

Chiljung,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QSCC II.

I. 서론

감정의 사전적 정의는 첫 번째는 '느끼는 대상' 이고, 두 번째는 '감각, 지각 따위에 따라 일어나는 쾌, 불쾌의 심리상태' 이다¹⁾. 데카르트는 감정에 대해 우리의 사고하는 측면인 'soul'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기본감정을 경이(wonder), 욕망(desire), 기쁨(joy), 사랑(love), 증오(hatred), 슬픔(sadness)으로 정의하였다²⁾.

성리학의 理氣二元論에서는 본래의 性은 四端이라고 하여 선함의 단서로 삼고, 發한 情에 대해서는 七情이라고 보았는데, 四端은 理와 연결되고, 七情은 氣와 연결된다. 七情은 마음의 원초적인 好惡를 시작으로 분화한 것으로 마음의 상태 또는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³⁾.

이제마는 사상의학에서 감정의 발현에는 마음의 好惡가 그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객관적 세계와 연결된 측면의 天機와 인간 중심에서 바라본 주관적 요소들인 人事를 인식할 때 나타나는 好善과 惡惡으로 나뉜다. 특히 좋아하는 감정은 喜와 樂이고 싫어하는 감정은 怒와 哀로 나타난다 보았다³⁾.

한의학에서는 이런 일련의 감정들을 七情이라 칭하며, 기존의 칠정에 관한 연구는 성리학과 한의학적 개념의 칠정에 대한 문헌 연구⁴⁾, 칠정상과 스트레스 이론의 비교 연구⁵⁾, 고전문헌과 의서에 있는 칠정의 표현을 정리하여 유형별로 분류 및 표현상의 정도차를 파악한 연구⁶⁾ 등이 있었다. 하지만 칠정과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의 연관성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는 내용은 미진한 편이었다.

이에 저자는 Watson 등⁷⁾이 개발하고 이유정⁸⁾이 번안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에 표기된 단어 목록을 이용하여 七情의 속성을 알아보고, 칠정의 정적/부적 정서 정도의 차이로 인한 속성적 특성에 대한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척도에 표기된 단어 목록을 이용하여 칠정의 속성적 특성을 체질별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2. 측정도구

1)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Watson 등⁷⁾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유정⁸⁾이 번안하고, 이현희 등⁹⁾이 정적/부적 정서를 타당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정적 정서는 '활기찬(active)', '열정적인(enthusiastic)', '원기왕성한(inspired)', '자랑스러운(proud)', '강한(strong)', '흥미진진한(interested)', '흥분된(excited)', '단호한(determined)', '주의깊은(attention)' 등의 9개 문항으로 분류하였고, 부적 정서는 '신경질적인(nervous)', '과민한(irritable)', '피로한(distressed)', '혼란스런(upset)', '두려운(afraid)', '적대적인(hostile)', '조바심나는(jittery)', '겁에 질린(scared)', '죄책감 드는(guilty)', '부끄러운(ashamed)', '기민한(alert)' 등의 11개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2)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는 객관적인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PC용 Program으로 체질진단의 높은 정확률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표준화 작업을 거쳐 객관화된 진단지표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총 121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객관식 15문항이고

나머지는 주관식이며, 신체적 요소 8문항과 심성적 요소 80문항, 체질병증과 체질소증에 관한 24문항, 동기왜곡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3) 설문지

칠정과 관련된 정서적 요소를 중요도 순으로 1에서 20번까지 기록하게 하였다(부록 1).

3. 연구대상과 절차

2000년 0월부터 0월까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 중 한방생리학을 수강하여 칠정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19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164명 중 설문답안이 불성실한 8명을 제외한 156명(남자 111명, 여자 45명)명을 대상으로 QSCC II와 칠정과 관련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QSCC II를 통해 감별된 체질별로 소양인 45명, 소음인 50명, 태음인 28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룹(Not Classify, 이하 미분류) 33명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네 그룹과 각 체질간의 설문지 척도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칠정의 정적·부적 정서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4. 통계분석

QSCCII와 PANAS와 칠정의 관계 대한 설문에서 얻은 자료를 SPSS Window 15.0 (SPSS, KORE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성별, 연령별, 체질 등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체질 구간 성별, 나이는 피어슨의 카이제곱검정(Pearson's 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다.
- 2) 사상체질에 따른 칠정의 속성은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과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평균이 1 이상 7 미만은 상위, 7 이상 15 미만은 중위, 15 이상 20 이하는 하위 순위라 정하고 칠정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성별, 나이, 체질의 분포

체질간의 나이와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Group		Soyangin		Soeumin		Tae-eumin		Not Classify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Sex	Male	25	55,56	38	76	23	82,14	28	84,85
	Female	20	44,44	12	24	5	17,86	5	15,15
General Characteristics	20s	35	77,78	38	76	21	75	23	69,70
	30s	8	17,78	9	18	6	21,43	7	21,21
	40s	2	4,44	3	6	1	3,57	3	9,09
	Total	45	100	50	100	28	100	33	100

Table 2. Pearson's chi-square test of Sex and Age

		value	df	p-value(two-sided test)
Soyangin	Pearson's chi-square test	158,525	15	.000
	likelihood	207,008	15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008	1	.929
	effective case number	238		
Soeumin	Pearson's chi-square test	144,711	16	.000
	likelihood	158,518	16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5,725	1	.017
	effective case number	336		
Tae-eumin	Pearson's chi-square test	149,046	15	.000
	likelihood	135,098	15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1,701	1	.192
	effective case number	244		
Not Classify	Pearson's chi-square test	50,400	7	.000
	likelihood	67,963	7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17,375	1	.000
	effective case number	84		

2. PANAS에 따른 칠정의 속성

1)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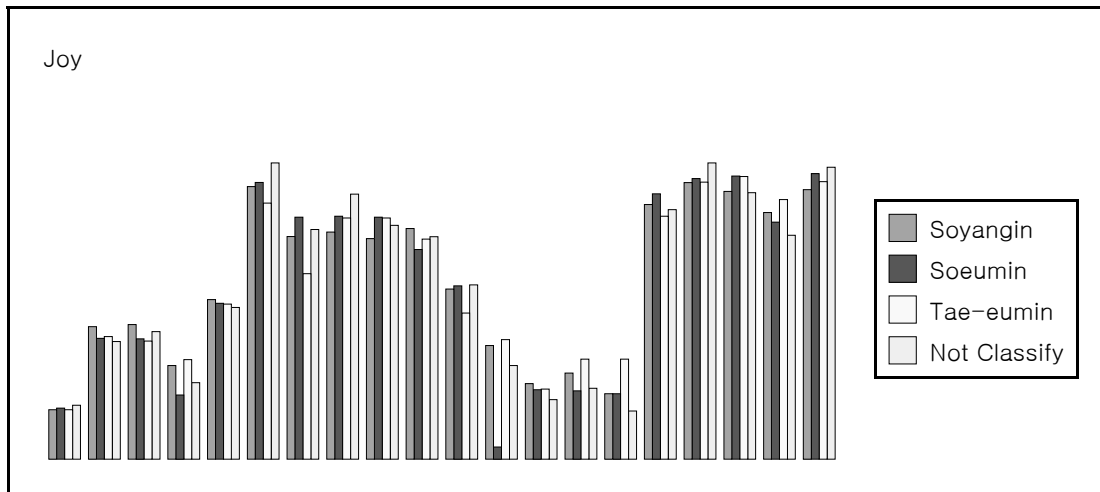


Fig. 1. Crosstabulation Analysis of Joy on 4 type constitution.

상위 순위에 정적인 '흥미진진한', '원기왕성한', '흥분된', '열정적인', '자랑스런', '활기찬' 정서가, 하위 순위에는 부적인 '죄책감', '신경질적인', '겁에 질린', '적대적' 정서가 위치하였다. 정적 정서의 '단

호한' 과 나머지 정서들은 중간 순위를 차지하였다.

체질적으로는 소음인에서 '흥분된'과 '원기왕성한' 정서가 소양인과 태음인에 비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외는 비슷한 순위를 나타내었다.

2) 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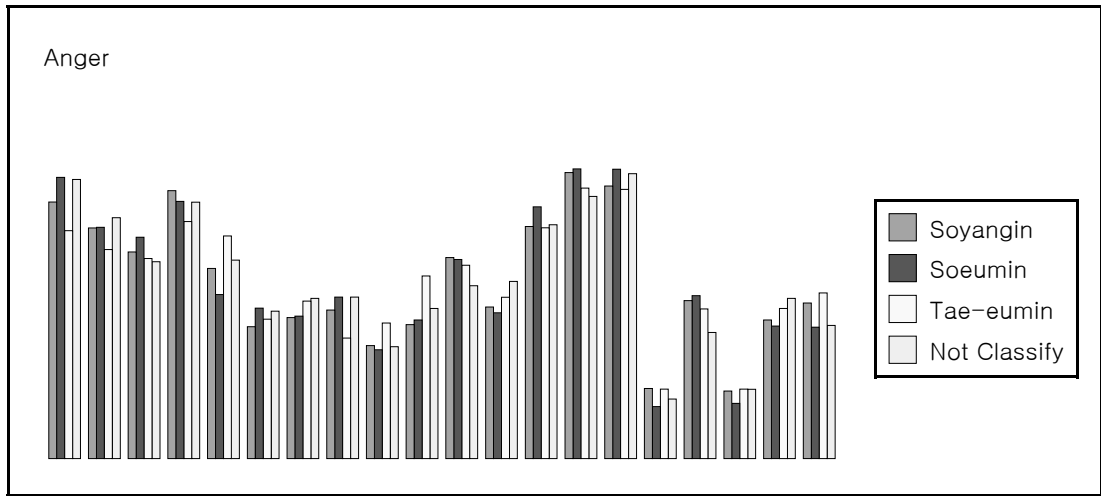


Fig. 2. Crosstabulation Analysis of Anger on 4 type constitution.

상위 순위에 부적인 '혼란스런', '신경질적인', '적대적' 정서가, 하위 순위에 정적인 '흥미진진한', '자랑스런', '활기찬' 정서가 위치하였다. 나머지

정적, 부적 정서들이 중간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체질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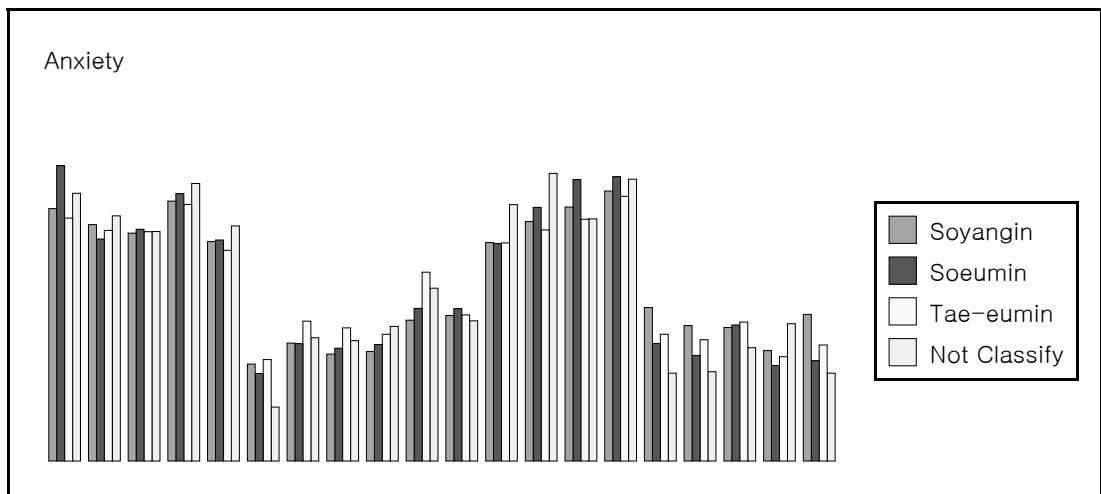


Fig. 3. Crosstabulation Analysis of Anxiety on 4 type constitution.

상위 순위에 부적인 '죄책감', '부끄러운', '겁에 질린', '조바심', '두려운' 정서가, 하위 순위에 정적인 '흥미진진한', '원기왕성한', '자랑스런', '활기

찬' 정서가 위치하였다. 나머지 정적, 부적 정서들이 중간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체질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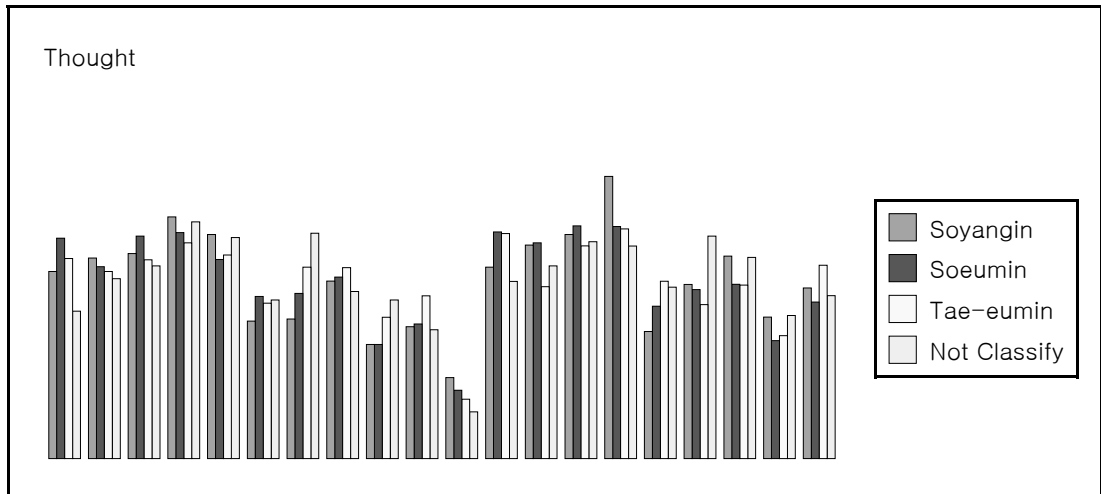


Fig. 4. Crosstabulation Analysis of Thought on 4 type constitution.

상위 순위에 정적인 '주의 깊은' 정서가 위치하였고 나머지 정서는 모두 중간 순위를 나타내었

다. 체질적으로는 태음인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보였고, 정서간에는 체질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5) 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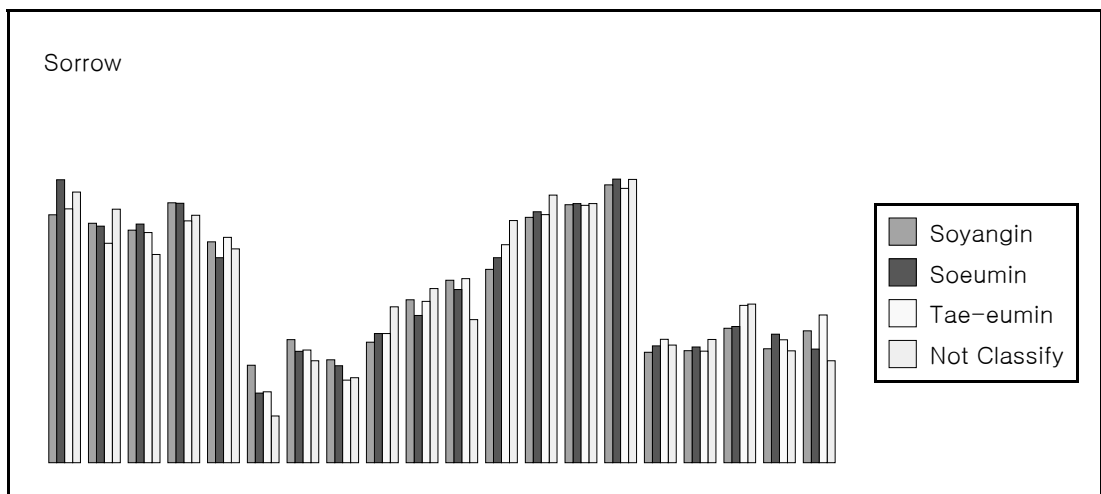


Fig. 5. Crosstabulation Analysis of Sorrow on 4 type constitution.

상위 순위에 부적인 '죄책감', '피로한', '부끄러운', '신경질적인', '겁에 질린' 정서가, 하위 순위에 '흥미진진한', '자랑스런', '활기찬' 정서가 위치

하였다. '죄책감'과 '부끄러운' 정서에서 소음인과 태음인이 소양인 보다 우선순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정서는 체질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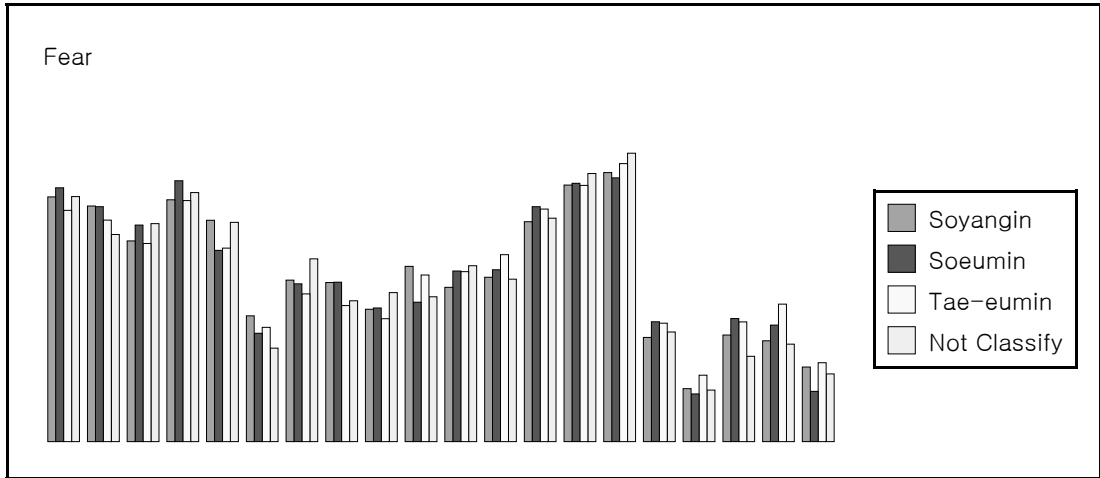


Fig. 6. Crosstabulation Analysis of Fear on 4 type constitution.

상위 순위에 부적인 '죄책감', '겁에 질린', '두려운' 정서가, 하위 순위에 정적인 '흥미진진한', '원기왕성한', '자랑스런', '활기찬' 정서가 위치하였다. '죄책감' 정서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겁에 질린'과 '두려운' 정서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과 태음인 보다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나머지 정서는 체질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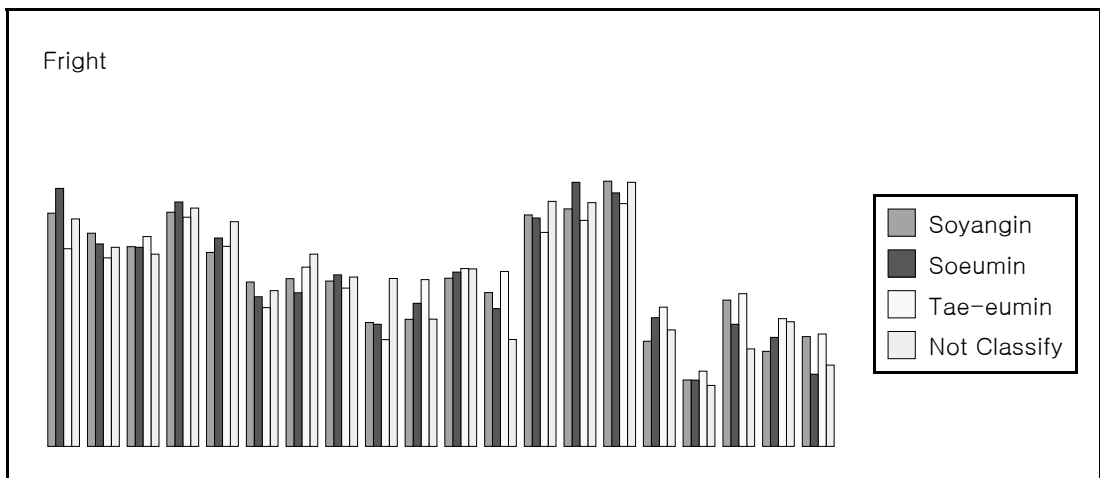


Fig. 7. Crosstabulation Analysis of Fright on 4 type constitution.

상위 순위에 부적인 '겁에 질린', '조바심', '두려운' 정서가, 하위 순위에 정적인 '자랑스런', '활기찬' 정서가 위치하였다. '두려운' 정서에서 소음인

이 소양인과 태음인보다 우선순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정서는 체질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고찰

한의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중 가장 빈발되며 구체적인 감정들을 七情이라 칭한다. 七情은 다른 사물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사람의 情志가 시시각각 활동변화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건강에는 무해하나 만약 지나치면 정신상 과도한 자극이 되어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통해 사상인의 네 가지 기본적 性情-喜怒哀樂이 상승 혹은 하강 운동을 통해 인체 장부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¹²⁾. 이 네 가지 性情은 사람마다의 심리발현에 있어 편차가 존재한다. 사상의학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대표하는 七情의 다른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喜怒哀樂만이 가지는 인간의 성정을 표현하고 있다¹³⁾.

칠정의 정지활동은 인체가 정상적인 조건 아래 외부환경의 각종 자극에 대하여 나타내는 다양한 적응성 정신반응이다¹³⁾. 정서활동은 음양속성의 차이가 있고, 현대 심리학의 각도에서 보면 정서간의 관계는 극성의 차이가 있다. 怒와 恐, 喜와 憂, 驚과 思 등은 음양극성이 대립하는 관계를 구성한다. 정서간 음양 속성의 대립은 인체의 장부 기혈에 대한 영향 역시 뚜렷하게 상반되도록 유도하고, 음양의 偏勝과 失調를 형성하며 생리병리적으로 상호 모순의 관계를 구성한다¹³⁾.

Watson과 Clack 및 Tellegen⁷⁾에 의하면 정적 정서(Positive Affect; PA)는 사람이 열광적이고 활동적이고 민활함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 높은 정적 정서는 높은 에너지, 완전한 집중, 즐거운 일 등의 상태를 의미하고 낮은 정적 정서는 슬픔과 무기력의 특징을 갖는다. 부정 정서(Negative Affect; NA)는 분노, 경멸, 메스꺼움, 죄의식, 공포 신경증을 포함한 다양한 혐오적 정서 상태가 포함되는 주관적인 고통과 불쾌한 일의

일반적인 차원을 말한다. 이때 부정 정서가 낮다는 것은 차분함, 평온함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七情과 PANAS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喜는 긍정의 대표정서로¹⁴⁾ 安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일종의 즐거운 감정을 말하며, ‘悲’나 ‘怒’, ‘憂’와 반의어로 사용된다”⁶⁾고 하였다. 정적인 정서들이 우선순위를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들이 나중 순위를 보이는 점에서 PANAS를 통해본 喜는 집중과 즐거움, 차분함, 평온함 등으로 그 속성을 풀어볼 수 있어 安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怒는 부정의 대표정서로¹⁴⁾ 安은 “심정적인 동요가 극심하여 화가 난 상태로 주로 기세가 웅장하거나 맹렬함을 의미한다”⁶⁾고 하였다. 부정적인 정서들이 우선 순위를 보이고 정적인 정서들이 나중 순위를 보이는 점에서 PANAS를 통해본 怒는 분노, 죄의식, 혐오와 집중력의 저하, 불안감 등으로 그 속성을 풀어볼 수 있어 安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喜와 怒를 긍정과 부정의 정서대표로 삼아서 칠정을 음과 양의 양극성으로 구분을 하는 견해가 있는데¹⁴⁾, PANAS에 의하면 '흥미진진한', '자랑스런', '활기찬', '신경질적인', '적대적인' 정서에 의해 서로 대를 이루는 점에서 喜와 怒는 陰陽으로 서로 대립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憂는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감정이 아닌, 감정활동이 일어난 후 또는 그 과정에서 이르게 되는 하나의 상태로 희망이 없는 상태,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상태이다¹⁵⁾. 부정적인 정서들이 우선 순위를 보이고 정적인 정서들이 나중 순위를 보이는 점과 怒에 비해 원기왕성한 정서가 없는 점에서 PANAS에 의하면 죄의식, 혐오, 두려움과 무기력감 등으로 그 속성을 풀어볼 수 있다.

安은 “思는 정력을 집중하여 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선행지식의 기반아래 사려 탐색하는 정신 작용으로 사색 사고 심사숙고 등의 의미를 갖는

다.”⁶⁾고 하였다. 정적인 주의깊은 정서만이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PANAS를 통해서 그 속성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정적 부적 정서적 특징이 없어 드러나지 않으나 역할이 분명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안은 “씨는 비통하고 번뇌하여 고통스러워함으로 생기는 것으로, 외부사물에 원인이 있어서 어떤 광경을 보고 느끼는 슬픈 마음을 지칭한다.”⁶⁾고 하였다. 부적인 정서들이 우선순위를 보이고 정적인 정서들이 나중 순위를 보이는 점에서 PANAS에 의하면 죄의식, 신경질적인, 무기력 등으로 그 속성을 풀어볼 수 있다. 씬에 비해 부적인 정서들이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보인다는 점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안은 “썩은 정신상태가 극도로 긴장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주로 어떤 사건의 정확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외향적 감정이다.”⁶⁾라고 하였다. 부적인 정서의 일부가 우선순위를 보이고 정적인 정서들이 나중 순위를 보이고 있어 PANAS를 통해 볼 때 공포, 혐오와 무기력 등으로 그 속성을 풀어볼 수 있다. 썩와는 '피로한', '부끄러운', '신경질적인'과 같은 부적인 정서가 없다는 것과 정적인 '원기왕성한'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슬픔이나 죄의식이 없다는 점이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驚은 놀라는 것으로 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하고 淺하고 일시적이다. 썩은 원인에 대한 이해나 파악이 불완전한 것이고, 驚은 자극요인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출현이 갑작스러운 것이다¹⁵⁾. 정적인 정서들이 나중 순위를 보이고 있어 PANAS를 통해 볼 때 공포, 혐오와 무기력 등으로 그 속성을 풀어볼 수 있다. 다만 썩과는 달리 죄책감 정서는 없고 조바심 정서의 순위가 밀려 있으며, '흥미진진한', '원기왕성한' 정서의 순위가 앞으로 온 점에서 볼 때 불안하나 침잠된 상태, 혐오감이 없는 상태 등으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상으로 PANAS에 나오는 형용사 단어 목록

을 이용하여 칠정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20개라는 단어에 한정되어 칠정을 정적 부적 요소에만 귀속시킨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에 의한 형용사 분석을 통해 칠정과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고 칠정의 형용사를 선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본 연구가 향후 연구의 예비적 단계로서 의미가 있음을 밝힌다.

V. 결론

본 실험에서 우리는 정적 부적 정서척도를 이용하여 칠정의 속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흥와 怒는 서로 상반된 정서 속성을 가진 긍정과 부정의 대표 정서이다.
2. 씬는 정적 부적 정서척도를 이용하여 그 속성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憂와 悲와는 구별된다.
3. 憂와 悲는 부적 정서 속성이 우세하며, '원기왕성한' 정적 정서의 차이가 있다.
4. 썩과 驚은 부적 정서 속성이 우세하며, 썩보다 驚이 정적 정서 특성이 우세한 경향이 있어 구별된다.

References

1.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 Grand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1, Seoul, Eomungak, 1992, p.98
2. Descartes, R, "Treatise on the Passions of the Soul," The Philosophical Works of Descartes vol. 1, trans. E. Haldane and G. R. T. Ro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Press, 1979.
3. You Sang Baik, Analysis on the Theory of the Nature and Emotion by Lee Je-Ma -With Four-seven Debate of Ri and Gi, The Journal of the Korean philosophy 2009; 26:233.
 4. Yu Dongin, Yu Huiyeong, A Study on the Chiljung,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92;3(1):3-22
 5. Tae joon Koh, Sang ryong Lee. The Thought of Che-Qi-Jung concerned with Phenomenon of Stress. Institute of Oriental Medinine Daejeon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2000;8(2):317-27
 6. Sang woo An. Reference study for concept definition of 'Seven emotions theory'. Third phase of medicine. 1996;1(2):39-50
 7. Watson, D., Clark, L. A., & Tellega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8;54(6):1063-70
 8. Lee Yujeong.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mood level and its variability. Chung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4
 9. Hyun-hee Lee, Enu-jung Kim, Min-kyou Lee. Brief Report :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22(4):935-46
 10. Kim Taeyeon, Yu Jeonghui, Lee Uiju, Ko Byeonghui, Song Ilbyeong. A Study on upgrade of the QSCC II(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I). Journal of Sasang Const, Med. 2003;15(1):28.
 11. Hwang Weiwan. Psychosomatic disease. Seoul : Haengrim publication, 1985:33-7
 12. Song Ilbyeong, Lee Munjae. Review on The theory of the four morals and seven emo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Journals of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1995;16(1):42-5.
 13.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Neuropsychiatry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The Oriental Neuropsychiatry. Seoul : Jipmoondang. 2007:92, 154, 668
 14. Sonh Ho-chul, Kim dong hee, Kim sung-hoon. A study on the generation of seven-emotion in the east-west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nine Daejeon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2000; 9(1):188-9
 15. Yoon Eunkyung, Baik Yousang, Jeong Changhyun. Emotional factors in the mechanism of Chiljeongsang.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1;24(4):117-42

부록 1

No. _____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의학적인 칠정과 일반적 정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귀하의 체질과 일상생활의 정서경험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철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의 표시(√ 또는 O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 성별 ① 남 ② 여
3. 연령 만 _____ 세
4. 혈액형 ① A 형 ② B 형 ③ O 형 ④ AB 형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七情과 관련된 물음에 대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순위를 다음에서 골라 표시해 주세요(1-20번까지)

1. 나는 _____ 한 경우에 **흥**을 느끼거나, **흥**의 상황에서는 _____ 를 느낀다.
- 흥미진진한 () 기민한 () 강한 () 원기왕성한 () 단호한 ()
 죄책감 드는 () 피로한 () 부끄러운 () 혼란스러운 () 과민한 ()
 주의깊은 () 흥분된 () 열정적인 () 자랑스러운 () 활기찬 ()
 신경질적인 () 겁에 질린 () 적대적인 () 조바심나는 () 두려운 ()
2. 나는 _____ 한 경우에 **怒**를 느끼거나, **怒**의 상황에서는 _____ 를 느낀다.
- 흥미진진한 () 기민한 () 강한 () 원기왕성한 () 단호한 ()
 죄책감 드는 () 피로한 () 부끄러운 () 혼란스러운 () 과민한 ()
 주의깊은 () 흥분된 () 열정적인 () 자랑스러운 () 활기찬 ()
 신경질적인 () 겁에 질린 () 적대적인 () 조바심나는 () 두려운 ()
3. 나는 _____ 한 경우에 **憂**를 느끼거나, **憂**의 상황에서는 _____ 를 느낀다.
- 흥미진진한 () 기민한 () 강한 () 원기왕성한 () 단호한 ()
 죄책감 드는 () 피로한 () 부끄러운 () 혼란스러운 () 과민한 ()
 주의깊은 () 흥분된 () 열정적인 () 자랑스러운 () 활기찬 ()
 신경질적인 () 겁에 질린 () 적대적인 () 조바심나는 () 두려운 ()

4. 나는 _____ 한 경우에 **思**를 느끼거나, **思**의 상황에서는 _____ 를 느낀다.

- 흥미진진한 () 기민한 () 강한 () 원기왕성한 () 단호한 ()
- 죄책감 드는 () 피로한 () 부끄러운 () 혼란스러운 () 과민한 ()
- 주의깊은 () 흥분된 () 열정적인 () 자랑스러운 () 활기찬 ()
- 신경질적인 () 겁에 질린 () 적대적인 () 조바심나는 () 두려운 ()

5. 나는 _____ 한 경우에 **悲**를 느끼거나, **悲**의 상황에서는 _____ 를 느낀다.

- 흥미진진한 () 기민한 () 강한 () 원기왕성한 () 단호한 ()
- 죄책감 드는 () 피로한 () 부끄러운 () 혼란스러운 () 과민한 ()
- 주의깊은 () 흥분된 () 열정적인 () 자랑스러운 () 활기찬 ()
- 신경질적인 () 겁에 질린 () 적대적인 () 조바심나는 () 두려운 ()

6. 나는 _____ 한 경우에 **恐**를 느끼거나, **恐**의 상황에서는 _____ 를 느낀다.

- 흥미진진한 () 기민한 () 강한 () 원기왕성한 () 단호한 ()
- 죄책감 드는 () 피로한 () 부끄러운 () 혼란스러운 () 과민한 ()
- 주의깊은 () 흥분된 () 열정적인 () 자랑스러운 () 활기찬 ()
- 신경질적인 () 겁에 질린 () 적대적인 () 조바심나는 () 두려운 ()

7. 나는 _____ 한 경우에 **驚**를 느끼거나, **驚**의 상황에서는 _____ 를 느낀다.

- 흥미진진한 () 기민한 () 강한 () 원기왕성한 () 단호한 ()
- 죄책감 드는 () 피로한 () 부끄러운 () 혼란스러운 () 과민한 ()
- 주의깊은 () 흥분된 () 열정적인 () 자랑스러운 () 활기찬 ()
- 신경질적인 () 겁에 질린 () 적대적인 () 조바심나는 () 두려운 ()

